

양현종 가는 길...그 '길'이 역사가 된다

2025년 베테랑의 행보...대기록 달성 초읽기

'11년 연속 100K' 도전장·KBO 통산 최다 탈삼진 '...ing' '이닝이터' 자존심, 11년 연속 170이닝 투구 새역사 주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이 2025년에도 '살아있는 레전드'의 행보를 이어

간다.

이미 KBO 리그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또 하나의 전설을 써 내려갈 태세다.



지난해, 양현종은 '에이스' 네일과 함께 KIA 마운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팀의 통산 12번째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 달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규리그 총 29경기에 등판한 그는 171.1이닝, 11승5패, 평균자책점 4.10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팀의 7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견인했다.

삼성과의 한국시리즈에서도 2차전에 등판해 5.1이닝 동안 2실점 5삼진의 호투로 승리투수를 떠내며 'V12' 주역이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올 시즌에도 가장 주목받는 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KBO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역대급 기록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올해가장 기대할 만한 그의 업적은 KBO 최초 '11년 연속 100탈삼진'이다.

양현종은 지난해 12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이강철(kt 감독), 장원준(전 두산 베어스)에 이어 역대 3번째로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작성했다.

올 시즌 추가로 100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으면 KBO 최초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타이틀이름을 올리게 된다.

KBO 리그의 역사를 통틀어 한 시즌에 100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많지만, 이를 11시즌 연속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꾸준함,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부상 없는 건강함을 모두 갖춰야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양현종은 'KBO 최초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KBO 통산 최다 탈삼진'이라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금자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에 'KBO 최초 11년 연속 100탈삼진'이라는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추가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양현종은 KBO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더욱 압도적인 숫자로 경신해 나갈 전망이다.

양현종은 지난해 8월 21일 광주 롯데전에서 2천49번째 삼진을 빼앗아 '전설' 송진우(빙그레-은퇴)를 넘어 통산 탈삼진 1위로 올라섰다.

통산 2천76개의 탈삼진으로 시즌을 마친 양현종은 올 시즌에도 매 경기 삼진을 꾸준히 추가하면 2위 송진우(빙그레 2천48개)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된다.

'이닝이터'로서의 자존심도 지킬 예정이다.

지난해 그는 KBO 리그 최초로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돌파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

올 시즌에도 부상없이 마운드를 지킨다면 '11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이처럼 양현종은 2025시즌에도 단순한 기록 달성을 넘어, KBO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물론, 어느 덧 30대 후반인 그의 나이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지만, 오히려 이러한 도전이 그를 더욱 불타오르게 할지도 모른다.

KIA 타이거즈의 심장이자, KBO 리그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로서 그의 도전은 올해도 계속된다.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팬들의 시선은 2025시즌 마운드 위의 양현종에게 집중될 것이다. /주홍철 기자

김혜성, LA다저스 유니폼

3+2년 최대 324억원에 입단 합의...40인 로스터 포함

야구 국가대표 내야수 김혜성(25)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김혜성 소속사인 CAA 관계자는 지난 4일 김혜성이 다저스와 3+2년 최대 2천200만달러(약 324억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장 계약은 3년 총액 1천250만달러(약 184억원)이며, 이후 2년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CAA에 따르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계약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김혜성(25)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하며, 김혜성을 40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다저스는 이날 "유틸리티 플레이어 김혜성과 3년 1천250만달러(약 184억원), 2028년과 2029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김혜성은 40인 로스터에 포함됐다(김혜성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포스 디에고 카르타야를 방출대가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다저스 구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어로 "김혜성 선수, 다저스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김혜성은 일단 40인 로스터 진입까지 성공했다.

'백리거의 꿈'을 이루려면 '26인 로스터'에 포함돼야 한다. /연합뉴스



김혜성을 위한 다저스 구단의 환영 인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인스타그램 캡처>

다저스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스타 군단'이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2루수 개빈 러크스, 유격수 무키 베츠를 주전으로 활용할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 테일러, 미겔 로하스, 토미 현수 에드먼도 '센터 내야수'(유격수와 2루수)로 뭉 수 있다"며 "김혜성 영입으로 다저스에 센터 내야수가 늘었다. 김혜성은 테일러, 로하스와 역할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브랜던 굼스 다저스 단장도 "김혜성은 2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는 유틸리티 역할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김혜성의 현실적인 위치는 '백업 내야수'라는 뉘앙스를 담았다.

1차 목표를 달성한 김혜성은 개막 로스터 진입을 위해 2월 스프링캠프부터 생존경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김혜성 반긴 '다저스 동료' 오타니

"환영합니다 친구야"

김혜성(25)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입단을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가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오타니는 김혜성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 김혜성의 사진과 함께 한글로 '환영합니다 친구야'라고 적었다.

오타니는 김혜성이 다저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다저스가 MLB 서울 시리즈를 치르기 위해 한국을 찾았을 당시 오타니와 만났던 김혜성은 이제 빅 리그 무대에서 팀 동료로 한술밥을 먹게 됐다. /연합뉴스



김혜성의 계약 소식이 오타니 쇼헤이가 SNS에 올린 환영 인사 <오타니 쇼헤이 SNS 캡처>

정현, 인도네시아 퓨처스 테니스 우승

5년 5개월만에 V

정현(1천104위)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암만 미네랄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다.

정현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단식 결승에서 자일스 핫세(421위·영국)를 2-0(6-1, 6-2)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정현은 2019년 8월 남자프로 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지 이후 5년 5개월만에 국제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정현은 이후 부상이 이어지며 내리막을 걸었다.

세계 랭킹도 2018년 19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천위 밖으로 밀린 상태다.

2023년 6월 월별던 예선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일본 퓨처스 대회로 복귀전을 치렀다.

정현은 정규 투어 대회 우승은 없고, 2017년 20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넥스트 젠 파이널스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단식 기준으로 챌린지에서 9번 우승했으며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열린(ATP) 시슬리 서울오픈 챌린지 단식 16강 정현 경기 모습. /연합뉴스

정현은 2017년 20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넥스트 젠 파이널스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단식 기준으로 챌린지에서 9번 우승했으며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정현이 조금 더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주로 100-300위 선수들이 본선에 뛰는 챌린지 무대에도 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3일 태국 코사미 동계전지훈련 출발에 앞서 2025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더 강하고, 더 단단한 광주' 본격 시동

광주FC, 23일까지 코사미이 전훈...기초 체력 보강 역점 신임 수석코치에 마철준 선임...'이정효 사단' 구성 완료



프로축구 광주FC가 본격적인 2025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는 3일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 코사미이로 출국했다.

1차 훈련은 오는 23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되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이동해 내달 3일까지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뜻한 기후의 환경인 코사미이에서는 선수단의 기초 체력 향상 및 전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며, 2차 오사카 전훈에서는 실전 감각과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특히, 내달 11일 중국 산둥성 지난을 립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산둥 타이산과의 ACL7차전 원정경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강도 높은 전지훈련으로 시즌 첫 경기에서 16강 확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직력과 체력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 완성도 있는 팀을 꾸리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광주FC는 이정효 감독을 필두로 2025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

기존의 스태프들이 대부분 잔류해 '이정효 사단'이 유지되는 가운데, 마철준 코치가 신임 수석코치로 승격해 이정효 감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철준 신임 수석코치는 2013년 광주에서 지도자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제주와 대구에서 수석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박희종 기자

토틸 감독 "양민혁 EPL 데뷔, 적응 시간 필요해"

"손흥민 구단 안팎서 도움줘"

'슈퍼 루키' 양민혁(18)이 새해가 밝으면서 공식적으로 토틸 감독의 선수가 됐으나 실전 투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틸 감독은

지난 4일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민혁의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면서 "단지 적응

하도록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민혁은 아직 어리고,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리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틸 감독은 손흥민의 조력에 대해

서도 언급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여기 있다는 것이(양민혁에게) 큰 도움이 된다. 손흥민이 구단 안팎에서 그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양민혁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가 적응하는 것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